

내년 초 ‘불교사회연구소’ 설립된다

불교사상을 근간으로 생명과 환경, 통일, 인권 등 사회 제 현상과 현안을 연구, 대안을 제시하는 종단차원의 연구소가 설립된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1차 회의를 갖고 오는 2011년 1월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8일 제정, 공포된 ‘불교사회연구소 설립 운영에 관한 령’에 따르면 불교사회연구소는 총무원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위상을 갖게 된다. 연구소는 △생명, 환경, 통일, 인권, 종교 등 각종 사회현상과 현안에 대한 조사 △교계 전문 연구역량 강화 및 조직사업 △교계 전문 연구역량 강화 및 조직사업 △각종 사회현상과 현안에 대한 조사 △교계 전문 연구역량 강화 및 조직사업 △각종 사회현상과 현안에 대한 조사 △교계 전문 연구역량 강화 및 조직사업

불교사회연구소 설립추진위는 이 같은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제도와 조직, 재원, 운영계획안 수립 등 연구소가 정식 개원하기까지 모든 준비과정을 도맡아 진행하게 된다.

생명 환경 통일 인권 등 사회현안 대안 마련위해...

설립추진위원 14명 위촉 위원장에 원담·태연스님



원담스님

태연스님

다. 설립추진위원으로는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 기획실장 원담스님, 재무부장 성월스님, 사회부장 혜경스님,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원철스님,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정호스님, 총무원장 정책특보 태연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주요 교역직 스님과 정책특보가 참여한다. 또한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인목스님,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대오스님, 조계종 환경위원장 주경스님, 사패산기금위원장 초격스님, 여주 신특사 주지 세영스님,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지관스님, 손안식 중앙신도회 부회장 등 총14명이 동참하고 있다.

원담스님과 태연스님이 공동설립추진위원장을 맡았으며, 추진위 간사는 박희승 불교사회연구소 사무국장이 위촉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위촉장을 수

여한 후 “종단의 숙원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마음을 내준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추진위가 밑거름이 돼 하루빨리 연구소가 출범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추진위원장 원담스님은 “추진위는 종단 연구소 설립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 “연구소에 대한 불교계와 사회의 관심이 집중돼 있으므로 위원들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원족부터 낙산사 법주 정념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낙산사 주지 무문스님.

“어린이 청소년 노인복지에 최선” 양양 낙산사, 자비나눔기금 전달

양양 낙산사(주지 무문스님)는 지난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자비나눔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낙산사복지재단에 지정기탁되어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장학금과 체험캠프비용으로 사용된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낙산사가 복지·교육·포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불교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살펴 불법홍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낙산사 법주 정념스님은 “어린이와 청소년 뿐 아니라 노인들까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낙산사복지재단에서는 낙산유치원과 무산지역아동복지센터, 의상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해 새까 포교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양양군노인복지관을 개관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 속초·양양 교육청과 연계해 매년 3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장학금을 전달하는 한편 2박3일 동안 문화체험캠프도 열고 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중앙종회 특위 본격 가동

제185회 정기중앙종회를 통해 출범한 조계종 중앙종회 내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잇따라 열어 활동방향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계종 중앙종회 정부의종교차별종식 및 종교평화확립을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주경스님)는 지난 9일 첫 회의를 열고 템플스테이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드러난 정부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부재를 규탄하는 성

졸속 국가예산 처리 ‘규탄’ 불교규제법 심의위원 ‘위촉’

명서를 긴급 발표했다. 종교차별특위는 “한나라당은 날치기 예산통과로 국민을 우롱하고 불교계에 대한 예의 조차 지키지 않은 만큼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가 어떻게 단죄되는지 그들 스스로 뼈아프게 느끼도록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종교차별특위는 매월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긴급 현안 발생시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원회 간사로 손안식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이후 활동방향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의 관계, 전문위원 위촉 등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7일 불교규제관련국가법령제개정 및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항적스님)도 1차 회의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불교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위원(1명)과 자문

위원(5~7명)으로 각각 위촉해 잘못된 불교규제법령을 바로잡아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을 위원회 간사로 선출했다. 순천 선암사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지난 7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간사에 정법스님을 선출하고 5명의 위원 스님들로 꾸려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비공개로 논의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한편 인사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지홍스님)는 1월께 첫 회의를 열어 조직구성과 활동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지난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보낼 영양제와 목도리 등 '선재의 선물' 600박스를 정성껏 포장했다. 신재호 기자

“멋진 꿈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아름다운동행 ‘선재의선물’ 정성껏 포장

“추운 겨울에도 더 큰 나무가 되기 위해 꿈을 지켜가는 나무들처럼 너도 멋진 꿈을 키워가길 바랍니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지난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선재의 선물 600박스를 포장했다. 행사에는 총무국장 현담스님,

감사국장 우복스님, 재정국장 각운스님, 사회국장 묘장스님을 비롯해 조계종자원봉사단, 종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해외성지순례 일정에 앞서 포장식에 참석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목도리가 따뜻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말하며, 봉사자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선재의 선물은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종합 비타민제와 일기장, 자기 계발 동화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주니어김영사’가 동참해 일기장과 생각노트를 후원했다. 선재의 선물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9곳으로 배달될 예정이다.

사회국장 묘장스님은 “이 선물은 몸을 보호하는 영양제와 마음을 닦을 수 있는 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지혜의 선물”이라며 “선물을 받은 어린이들이 큰 꿈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승가고시 질적 향상 필요하다”

6기 고시위원 9명 위촉...위원장에 지안스님

조계종 6기 고시위원장으로 승가대학원장 지안스님(사진)이 호선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승스님)은 지난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6기 고시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고시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고시위원은 지안스님을 비롯해 승광사 승가대학장 일귀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스님, 선운사 초기불전 승가대학원 재원스님, 경주 정각원장 화랑스님, 송광사 유주 지현스님, 법인정사 선원장 설운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분각스님, 불영사 주지 일운스님 등 9명이다.

고시위원장으로 호선된 지안스님은 “교육개혁이 종단현안으로 대두된 요즘 고시위를 통해 승가고시가 실현되고 정착된 점도 있지만 질적



교를 잘 이해하고, 의식까지 현대화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지안스님은 이어 “승가고시의 질 향상을 통해 수행자들이 내적인 지식을 쌓고 인격을 도야하려고 노력한다면 불교계 전체가 업그레이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6기 고시위원회 스님들이 승가교육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어현경 기자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한문위주 교육에 준해서 문제를 출제했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불교 심화를 넘어 불교를 잘 이해하고, 의식까지 현대화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8일 국제선센터 기획국장에 미국 보스턴 문수사 주지 진우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국제선센터를 새로운 무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획국장의 책무가 크다”며 “기획국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복무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우스님은 만석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4년 범어사에서 사미계를, 1998년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미국 보스턴 문수사 주지와 뉴욕 불광사 지도법사 등을 역임했다. 박인탁 기자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치과진료소 운영

궁플라ント치과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01020-증-2903호

행복하세요~
함께 나눌수록 '행복' 해집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나눔'에 동참해 주세요

궁플라ント치과는 2010년 1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어려운 이웃(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해 '무료 치과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0. 5. 16.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치과 진료소 공동주최

- 일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 진료대상 :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어린이와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증명서 지참)
- 진료범위 : 구강검진, 스케링, 행사 당일 치료가 끝날 수 있는 충치치료와 발치

궁플라ント치과원

조계사 앞 사거리 위치 ·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상담 · 문의 02-722-2870 www.GungPlant.co.kr